

2022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1.22. 15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9/10	3	-	12	○		

o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문해주 위원
정의식 위원, 이현숙 위원, 유환익 위원,
정경모 위원, 김희중 위원, 천경숙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추승호 보도본부장, 문승재 시청자센터장, 한승호 심의실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4	-	-	-	14	-	14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4	-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10.18일자 <마약3>편의 자막에서 '문턱 낮아진 마약' 표기는 적절해 보이지 않음. 문턱이 낮아졌다는 표현은 통상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워 보이기 때문임. 차라리 '구매 환경 쉽게 노출' 등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한 뉴스인 만큼 자막 다는 일에도 신경 써 주면 좋겠음. 마약 구매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리포팅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음. 또한 '마약김밥'부터 해서 '마약옥수수' '마약가수' 돈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마약 스테이크 보면 만약에 부정적인 사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어느 정도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김희중위원)</p>	<p>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가지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턱 낮아진' 이런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라서 자막으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구매하는 절차를 묘사하는 것도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보기에 따라선 자세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추후 취재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마약 김밥'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방송에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쉽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표현이라서 무심코 썼는데 요즘처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도 자칫하면 위해성에 대한 경계심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22.11월 조치></p>	<p>'22.10월</p>
<p>보도</p>	<p>10월 17일 [뉴스초점] 시간에 '카카오에 울스톱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송출되었는데 앵커나 토론자는 그런 내용의 표현을 한 적이 없었고('카카오 먹통 사태'라고 표현) 진행도 유연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스톱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되지 않으나 생각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청자들이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거나 심지어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문해주위원)</p>	<p>'울스톱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지나친 측면이 있었는데, 사전에 거르지를 못했습니다. 뉴스 제작을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해당 제작진에게도 교육하였습니다.</p> <p><22.11월 조치></p>	<p>'22.10월</p>
<p>총 건수</p>		<p>2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연합뉴스TV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언론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체로 뉴스가 밋밋하여 매운맛과 감칠맛이 없다는 느낌이다. 물론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 중립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소재, 정부의 사전 사후 대책, 자세 등과 같이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은 이슈조차도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마치 중계방송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무책임이라 할 수 있다. 좋게 말해 정치 사안에 대해 각 정파의 입장만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중립적인 보도를 하겠다는 자세이다. 문제는 연합뉴스TV가 여야간 정치 대립과 갈등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 중계방송 식 보도에 익숙해 있다는 느낌이다.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허구를 주장하는 원내대표나 당대변인의 정치공세조차 그대로 중계방송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그 주장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임무인 환경감시기능이다. 정치색깔이 뚜렷한 신문이나 종편처럼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 채 이슈나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해석적 저널리즘(interpretive journalism)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것 또한 공익과 공명성을 추구하는 보도채널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현안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요즘 상황 자체가 무자르듯이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사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인 부분이 많고요. 물론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질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현재 정권만의 잘못이라고 비판하기엔 좀 단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돼 왔던 면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잘못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론권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고를 놓고서 여야의 정치적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라든가 또 원인 규명 부분은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연합뉴스TV만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권혁남위원장)				
보도	11.06 [연합뉴스TV 스페셜] 250회 : 빈집 150만 가구 '흥가'되지 않으려면?> 전국적으로 빈집이 150만 가구에 달하고 빈집의 증가에 따른 지역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빈집이 생기는 원인, 야기되는 문제점, 해외 사례, 제도적 미비점,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 보도하여 시청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박찬재부위원장)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제작진이 타 방송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소재를 발굴해서 시청률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빈집 150만 가구 저는 빈 집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숨겨져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좀 많이 찾아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		
보도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 연합뉴스TV가 처음 방송한 시간은 12:15분이고 '네이버뉴스'에 처음 입력한 시간은 12:26분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나 방송에서 수차례 '속보' 형식으로 보도한 뒤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건사고의 경우 '신속'한 보도가 생명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도가 늦어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는 연합뉴스TV 홈페이지와 '네이버뉴스' 검색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더 신속하게 보도를 하였는데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 그러나 대신, 연합뉴스TV는 처음 방송 후 한 시간도 되지 않은 01:12(01:47 네이버뉴스 입력)에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하여 19분 동안 사고 경위와 추정 원인, 안전조치, 지형 특성, 여성 사상자가 많은 이유, 소방 대응단계, 주요조치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한 것은 다른 언론과 차별화되어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문해	저희가 사고 속보를 첫 방송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다음날 12시 15분은 아니구요. 당일 밤 11시 47분입니다. 그 시각에 빨간 색으로 속보 자막이 나갔습니다. 연합뉴스나 일부 언론사들에 비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근무자들이 판단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주위원)				
보도	<p>보도화면의 경우 현장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지만 일부 '인터넷 신문'의 경우 화면이 불안정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간간히 비쳐져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 동영상은 서비스 운영원칙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이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자막으로 재생을 막아놓음, 연합뉴스TV의 경우 충격적인 화면은 없었지만,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자이크 처리한 가운데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길바닥에 누워있고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보여 일부 불편한 점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는 모든 언론이 방송 화면을 비슷한 내용으로 송출한 것이어서 주관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문해주위원)</p>	<p>현장 화면이 좀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는 부분은 저희도 하루가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영상들은 삭제를 많이 했습니다. 블러 처리를 하거나 삭제를 해서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p>	○		
보도	<p>요즘 주요 인명 현장에서, CPR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최소한 고등학교 교과과정(체육 등)에 CPR 교육이 있는 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CPR 교육과장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소형, 대형)사고들이 많아지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 고 교과 과정(최소한 고등학교 교과과정), 체육 등 필요한 과목에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현재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식위원)</p>	<p>CPR교육 부분은 일반 국민에 알릴 수 있는 리포트라든가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11/1 요즘 이태원 참사로 특집 방송을 하는 도중, 중간 중간 하는 광고 중에, '보람상조' 광고를 접하며, 꼭 이 시점에 해야 하는 지, 나만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인지, 상조회사와의 광고 약속 때문일지라도, 광고주에 양해를 구하고 상황이 좀 진정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마음 한편에 짹짹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의식위원)	방송 광고 계획이라는 게 보통 40일 이상 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일은 아마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주에게 양해를 구하면 광고를 미룰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광고 담당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루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		
보도	박병화 김근식 등 성범죄자 출소 관련 기사, 김근식과 박병화의 출소를 계기로 성범죄자의 출소와 관련한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때 출소해야하며, 출소한 이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 교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 대안은 있는지, 해외에 성공한 사례, 혹은 시범적이만 고려해볼만한 사례가 있는지 등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보는 내용도 기회 있을 때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희가 김근식 박병화 출소로 인한 지역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포트 하면서 출소자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덧붙이긴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을 때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는 체계적인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런 부분도 일회성 리포트를 하든 아니면 저희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적으로 다루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보도	전국 빈집 보도, 참신하고 획기적 기획 평가, 지난 11월6일 방송되었던 '연합뉴스TV 스페셜' 250회 "빈집 151	'연합뉴스TV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만 가구, 흥가되지 않으려면?”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 즉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는 현 시대에 매우 흥미 있는 주제였음. 특히 고령화와 지역소멸과도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높이 평가함.(유환익위원)	다.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대안도 제시하는 쪽으로도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보도	이태원 참사의 과연 언론의 역할 언론의 사명은 어디까지인가를 여기 시청자 위원회니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계속 참사가 나고 사고가 나는 사고에 규모 사고의 과정 하고 책임이 누구냐로 갑론을박 하다가 언론은 일단 한 것처럼 넘어간단 말이에요. 취재 현장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아니면 그전부터 축제가 일어나면 이태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 전 보름 전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많이 몰릴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텐데 과연 이 정부에서 혹은 지방 정부 경찰 소방당국 구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지 사고 난 다음에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다쳤고 누가 책임이고 정치권의 공방이 있다 없다 그런 보도는 솔하게 봐왔지 않습니까 언론은 뭘 했는지를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 언론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축제에 사람 많이 몰릴 건데 굉장히 기	언론의 예방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말씀은 저희도 절감하고요. 이태원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돼 있는 분위기였고, 그 전날부터 이태원역에 엄청난 사람들이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론들도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보도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기자들이 나가서 현장연결하면서 뒷부분에 안전 사고에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갖고는 예방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론의 사명을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대되고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라는 식으로 보도해 놓고 사고 나니까 언론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언론의 책임은 쏙 빠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잡아 돌린단 말이죠. 다시 한 번 좀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모위원)				
보도	연합뉴스TV가 10.29참사 당일 오전까지 내보낸 뉴스에는 앵커와 전문가 대담 중심의 뉴스가 주를 이루었음. 이로 인해 연합뉴스TV는 타사 뉴스보다 생존자나 근처의 시민, 상인 등 목격자를 통한 다양한 사고 내용은 시청자에게 현장감 있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함. 사고당사자를 보호하거나 현장 보호 차원 혹은 자극적이지 않은 보도를 위해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회부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건지 궁금함. TV뉴스의 장점은 현장성이라고 생각함. 특히 24시간 뉴스 채널은 타사보다 빠르게 현장에 서, 있는 그대로의 뉴스를 전할 때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취재 리포트가 많아지길 바람.(김희중위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사 당일날 저희도 이태원에 한 세 군데의 기자 포스트를 두고 방송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 앞하고 순천향대 응급실, 피해자들이 많이 후송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다목적 체육관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후송돼 있던 곳입니다. 그 세 곳에서 취재기자들 연결을 저희가 번갈아서 했는데 아무래도 기자들 숫자가 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급적이면 오랜시간 상세하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방송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은 보시기에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이런 대형 사고 보도 때 현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		
보도	라이브투데이 이 시각 '핫클릭'...진행 방식 바꾸면 어떨지, 매일 아침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핫클릭' 코너를 통해 시청자들이 클릭해 봤을 만한 뉴스를 묶어 내보내고 있음. 진행은 앵커가 직접 뉴스 전체를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앵커가 직접 발제하고 뉴스 내용도 직	'핫클릭' 코너는 다양성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접 리포트하다 보니 같은 목소리로 2분 이상을 듣게 돼 시청자 입장에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 받고 있음. 가능하다면 앵커가 발제하고 기자가 리포트하는 문답 방식으로 전환해 전하고자 하는 뉴스가 '핫클릭'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근조근 설명해 주면 어떨까 생각함.(김희중위원)</p>				
<p>보도</p>	<p>'이태원 참사' 관련 초기 속보 대응 늦어, 이번 달에는 10월 29일 저녁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속보] "이태원서 심정지 추정 환자 50여명 발생">이라는 제목의 사고 관련 속보가 올라온 시간이 29일 오후 11시45분이었고, 다른 여러 언론사에서도 소방당국의 풀을 받아 속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의 이태원 참사 관련 첫 보도는 사건 당일인 29일에는 나가지 못 했고, 자정을 넘겨 30일 0시 24분에 <이태원서 심정지 추정 환자 50여명...소방대응 3단계>라는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주말이었지만, 늦은 시간이었지만 당직 근무자나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이 이태원 헬러윈 축제를 취재하러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연합뉴스TV 직원 중 누구라도 TV 뉴스나 포털 검색을 통해 100명 이상 사망자가 난 초대형 사고 소식을 접했다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에 기자를 보내고, 속보를 전달했어야 하지 않거나 생각이 듭니다. 연합뉴스TV에서 사건 현장을 전달한 것은 첫 보도 후 2시간여가 지난 30일 새벽 2시31분 <[현장연결] "이태원 압사참사 59명 사망, 150명 부상"> 기사였습니다..(김세한위원)</p>	<p>이태원 사고 초기 보도 대응에 대해선 앞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당시 112나 119 당국에서 조차 이태원 관련 상황 파악이 늦어지면서 사회부도 11시가 넘어서야 상황을 인지했고, 즉시 당일 근무자 2명을 현장에 이동하도록 했습니다.</p> <p>또 밤 11시50분 사회부 전원에 출근을 통보했고, 가용인력 전원을 투입해 대응했습니다. 익일 오전부터는 타 부서 인력도 동원해 협업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했습니다.</p> <p>첫 현장 연결이 늦어진 것은 연결 장비(백팩)가 한 대밖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본부의 현장 브리핑과 시간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기자 연결보다는 소방본부의 첫 브리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사망자 집계 등 브리핑 내용을 반영해 첫 기자연결을 준비했습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지금 세월호 이후에 초등학교에서는 51차시라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으로 정해진 게 35분, 40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한 1분 5분 이상 하면 1차시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 수업이 꼭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51차시 안에는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소방재난 지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도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각 분야별로 두 번 정도씩은 다 지금 수업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안전에 관해서 한번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합뉴스tv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에 한 3월 4월 정도 되면 각 학교에서 그런 이제 안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그런 쪽으로 취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도 지금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들을 안전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천경숙위원)</p>	<p>말씀하신 대로 신학기철과 9월 이후에 어린이 교통안전 정보를 정례적으로 보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p>	○		
보도	<p>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제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부에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을 시키자 라는 내용으로 지금 교육부에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모차부터 보행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주별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을 좀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과정을 뉴스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천경숙위원)</p>	<p>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부에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